

각종 경기의 시상대에 선 선수들을 볼 때면 모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 그동안 피땀 흘린 노력의 결실이기도 보아 이로 하여금 감동적인 느낌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정작 시상대에 오른 선수들은 모두 자신의 성적에 만족해 할까?

1등은 가장 잘했으니, 2등은 1등은 아깝게 놓쳤지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었으니, 그리고 3등은 최소한 시상대에 설 수 있는 등수 안에 들었으니, 모두들 만족해 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러나 금메달을 놓친 2등이 메달 권에 가까스로 들어간 3등보다 만족도가 더 낮을 뿐 아니라 1등을 하지 못한 후회의 감정이 더 강하다고 한다.

2등은 조금만 더 잘했으면 하는 아쉬움 생겨

시상대에 오른 선수의 표정을 잘 살펴 보면 금방 알 수가 있다. 1등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환희의 미소를 듬뿍 담고 있다. 그러나 2등은 침울한 표정이거나 아쉬움의 눈물을 흘린다. 반면 3등은 안도의 미소를 짓고 있다. 왜 그럴까? 2등을 차지한 선수는 경기 중에 '조금만 더 기회가 좋았더라면 가장 높은 자리인 1등 시상대에 오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후회가 생긴다. 반면 3등은 메달 권에 들지 못해 시상대에 오르지도 못할 수 있었지만 3등으로 메달 권에 들어간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기분 좋은 일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2등과 3등을 한 선수들이 생각하는 대안적인 '가능 세계'는 다르다. 모두 1등일 수도 있었지만, 2등은 1등을 그러나 3등



왜 2등은 만족하지 못할까



은 4등이나 5등을 대안적인 '가장 세계'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후회의 감정이 다를 수밖에 없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한민국의 자랑이었던 피겨 여왕 김연아 선수의 눈물을 우리는 똑똑히 기억한다. 시상대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고 눈물을 흘리는 김연아 선수의 아쉬워하는 모습을 전국민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밴쿠버 올림픽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건 김연아 선수의 눈물은 그동안의 고통스러운 훈련과 가슴앓이에 대한 탄감이 교차하는 눈물이었을 것이다. 마지막 무대인 소치올림픽에서

는 가장 뛰어난 실력으로 연기를 마치고도 러시아의 텃세에 금메달을 강탈당하고 말았지만 "금메달은 받아야 할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말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함으로써 실력으로는, 인격적인 면으로나 진정한 스포츠 챔피언의 면모를 보여준 김연아 선수였다. 그렇게 여유 있는 미소를 보여주었던 그녀지만 시상식 후 무대 뒤에서 아쉬움의 눈물을 지던 그녀에게 더욱 대한민국 국민들의 가슴을 아프게 하였다. 그렇게 2등은 아쉬운 것이다.

그렇지만 소치올림픽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한 김연아 선수에게 쏟아지는 찬

사와 경의는 차라리 금메달을 목에 건 것보다 더 큰 영광이었으며 김연아는 그렇게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세계를 대표하는 진정한 스포츠 정신의 표본이 되었다. 김연아 선수는 출전한 전 경기에서 시상대에 올라 올포디움(All Podium)이라는 경의적인 기록을 달성하였다. 피겨의 불모지였던 대한민국 선수가 피겨 강국들과 막강한 재정지원의 일본 선수들을 제치고 일궈낸 결과이기에 더욱 대견한 일이다.

소치올림픽에서 보여준 김연아의 눈물에 함축된 의미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1등을 놓친 아쉬움에 대하여 이야기 해보자. 피겨스케이팅 선수라면 '연기 중에 엉덩방아를 찧지 않았다면' 하는 아쉬움이, 유도 선수라면 '그때 업어치기가 아닌 밀어치기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만약 쇼트트랙 선수라면 '마지막 골인 순간에 조금만 더 이를 악물고 한발 더 앞으로 내딛었다면' 하는 생각이 교차하며 1등을 놓치게 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후회가 밀려올 것이다. 자신이 다른 선택을 했을 경우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는 가능성에 내포된 아쉬움이 자신이 내린 결정에 따른 후회와 또 다른 이유다. 자신의 선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한 책임감 때문에 후회를 느끼는 것이다. 한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1등을 놓치게 된 아쉬움이 두고두고 크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사람의 실체는 무엇인가요?
What is the true nature of human being?

- ▶ 태초의 사람은 하나님이었습니니다. 하지만 태초의 하나님이 마귀에게 져고 그래서 지금은 마귀와 하나님이 병존하는 존재가 현재의 실제 사람의 상태입니다.
- In the beginning a human being is God. But, God of the beginning of the world is defeated by Satan. So, a mix of God and Satan is the actual state of human being at present.
- ▶ 예수만이 하나님의 자식이 아닙니다.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후손입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의 영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양심의 영, 하나님입니다.
- Jesus is not the only descendant of God. Every human being is a descendant of God. It is the spirit of God in human beings that makes men survive. Life is the spirit of conscience, God.
- ▶ 사람 마음속에 양심이 곧 하나님입니다. 하지만 마귀 영에 사로잡혀 사람이 하나님임을 사람 본인은 정작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 The spirit of conscience in human being's mind is God. However, no one knows the truth that a human being is God because men were captured by the spirit of Satan.
- ▶ 사람이 죽는 것은 사람 속에 마귀 영 때문입니다. 마귀 영에 의해 인간은 결국은 죽게 됩니다. 마귀는 사망의 신입니다. 마귀의 최종 목적은 인간을 마음대로 조종하면서 살려두다가 결국에는 죽이는 것입니다.
- It is Satan living in men that kills the human being. This is the reason that every human beings die in the end. Satan itself is the spirit of death. The final end of Satan is to manipulate and kill the men at the end of the day.
- ▶ 본질적으로 태초의 하나님은 죽지 않는 불멸의 존재였습니다. 인간을 죽음으로 이끄는 것은 바로 사망의 영, 마귀입니다. 영적인 무덤인 마귀 영의 육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되는 것이 사람이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 Essentially, God in the beginning was the immortality. Leading human beings to be killed is just the life-killing spirit, Satan. Getting out of the spiritual prison of Satan and becoming God again is the way for men to have eternal life.*

by Alice

속담 속의 영생학
도깨비는 방망이로 때고 귀신은 경으로 때다

'도깨비는 방망이로 때고 귀신은 경으로 때다'는 속담은 귀찮은 존재를 때 때는 그에 알맞은 특별한 방법이 있다는 말이다. 일단 도깨비와 귀신을 때려면 각각 그에 알맞은 방법을 찾아 노력해야지 될 수 있다. 도깨비는 방망이로 때려야 될 수 있고, 귀신은 경을 읽어야 떨어진다라는 것이다. 사람이려면 누구나 죽기를 싫어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서 죽어서 윤회하고, 죽어서 천국 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가? 죽음이 당연한 것이라면 죽기를 싫어하지 않아야 논리적으로 옳고, 죽기를 싫어한다면 죽지 않게 해줘야 종교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지 '죽어 천당이나 윤회'를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죽기를 싫어하는 인간들에게 영생불사를 주지 못하고, 감언이설로써 '죽어 천당'과 '죽어 극락'이라는 허황된 교리를 퍼는 것은 도깨비의 논리라고 해야 옳지 않을까. 그렇다면 '죽음'의 도깨비를 때는 방망이는 무엇일까? '죽음'의 도깨비를 때는 방망이를 이긴자 구세주님은 알려 주셨다. 태초의 인간은 불멸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의 인간은 6천 년 전 '나'라는 의식의 사망의 신, 마귀에게 사로잡힌 가아

(假我)의 존재이므로 '나'라는 의식을 죽여 없애면 태초의 하나님으로 되돌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즉 인간이 원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살면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도깨비 논리를 때는 영적 방망이이다. 또한 사람에게에는 실제로 사자귀신이 붙어 있다. 사자귀신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인데 사자귀신을 때면 경은 무엇일까? 지금까지는 '나'라는 의식이 하나님과 부처님에게 죄를 사해주소서라고 기도하였다. 그러나 사망의 신인 '나'라는 의식이 기도한다고 하나님과 부처님이 들어주시겠는가? 마귀의 기도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 들어주지 않으므로 귀신을 때면 경이 안 된다. 따라서 '나'라는 의식을 죽이는 것이 진짜 경이며 기도이다. 기도의 목적은 '나'를 죽이는 것! 나를 의식하지 않는 것! 곧 사망의 신, 마귀를 죽이는 것이므로 '나'라는 마귀를 죽이는 멸마경(滅魔境)을 알려주는 이삭 승리제단에서 참 영생 기도법(永生祈禱法)을 배우라! 그러면 '사망' 도깨비와 귀신은 박멸소탕(撲滅掃蕩) 되리라!* 참고로 기자

우리말 바꾸기
단어표기의 오류

아래 문장을 읽어보고 잘못된 표현들을 고쳐보자. 예) 오랫동안 쉼터로 시골집에 들렀다가 들녘에 불려 나가 운동 부족의 댓가만 툭툭히 치뤄야 했습니다. → '오랫만에'는 '오랜만에'가 맞다. '오랜만'은 '오래간만'의 준말로 보아서 ㄴ 받침을 쓰는 것이다. '오래간만'은 '오래가다'의 관형형인 '오래간'에 의존 명사 '만'이 붙어 명사로 합성된 것이다. 다음으로 '쉼터'는 '쉬려고'로 고쳐야 한다. '려고'를 '르려고'로 하거나 '르라고'로 함은 모두 잘못이다. '틀려서'는 '틀르다'가 기본형이고 'ㄹ'탈락 규칙에 의한 활용을 하므로 '틀러서'가 맞는 표현이다. 위 예문 뒷부분에 나오는 '치뤄'도 'ㄹ'탈락 용언 중에 자주 틀리는 예인데 같은 유형으로 자주 틀리는 단어로는 '담그다'도 있다. 이들을 '치루다, 담구다'로 알고 '치루어,

치러; 담구어, 담구'로 적는 경우가 많은데 모두 잘못된 표현이며 '치러, 담구'로 적어야 옳다. '들녘'은 '들녘'이 맞는 표현이다. '댓가'는 한자어의 사이시옷 규정에서 사이시옷을 쓰는 여섯 단어(꽃간, 셋방, 솟자, 찻간, 뒷간, 횡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가 올바른 표현이다. '툭툭히'는 '툭툭히'로 적어야 하며 마지막의 '습니다'는 현 한글 맞춤법 규정에서 쓸 일이 없어서 '습니다'로만 써야 한다. 따라서 위의 문장은 다음과 같이 올바르게 고쳐 쓸 수가 있겠다. "오랫만에 쉬려고 시골집에 들러서 들녘에 불려 나가 운동 부족의 댓가만 툭툭히 치러야 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추가로 고치려면 위 문장은 운동 부족의 댓가가 무슨 뜻인지 언뜻 떠오르지 않아 내용상 다듬을 필요가 있겠다.* 이승우 기자

당신을 영생의 세계로 안내하는 승리신문

성금계좌 : 우체국 103747 - 02 - 134421 예금주 : 이승우

독자님들의 정성어린 성금이 영생의 세계를 앞당깁니다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내주신 분께 감사드립니다

신의 실체를 알고 싶으십니까?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대하여

기독교, 천주교, 승리제단에서 답한 것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할 수 있습니다. 신의 호흡을 느끼고 신의 생생한 모습과 신의 음성, 신의 목시를 당신은 느낄 수 있습니다. 인간 삶에 대한 본질적 물음에 대해 신의 혜안으로 풀 어낸 답변을 읽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착한 심치는 지옥에 갔을까요? 그러면, 세종대왕은? 이순신 장군은? 이에 대한 답이 이 책에 있습니다

이병철 회장의 질문에 답하다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신의 실체를 밝혔다

하남님 (신) ● 하나님이 선한다면 재난과 전쟁, 무고한 사람들의 죽음을 왜 방치하는가?

종말 인류의 미래 ● 지구에 종말이 올까? ●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부자와 천국 ●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부자는 악인인가?

장생 천국한 삶 ● 사람은 왜 늙고 병들어 죽어야만 하는가?

시중 서점점찰 판매중 도서출판 해·인